



## 수행하듯 살아가는 한 조각가의 산문

《세상의 그리운 것들》 펴낸 조각가 강대철씨

명상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는 그동안 갈망해오던 '체식'에 들어갔습니다. 머리도 가슴도 위장도 맑아지니 삶이 더욱 투명해보입니다.”

강대철씨는 이 투명한 삶이 주는 기쁨과 아무것에도 걸린 바 없이 살고자 하는 삶의 지향을 이 책의 3부 <영적 진화를 위하여>에서 풀어놓는다. 그것은 미술평론가 유흥준씨가 “생명을 주제로 한 구도자의 '업풀이'”라 평한 바 있는 그의 조각작품들을 통해 이미 형상화된 것이기도 하다. <오온(五蘊)> 연작이나 <화두를 놓친 비구니>는 그가 깊이 공감하고 있는 불교의 세계관이나 우주관에 기초한 작품이고, 역시 연작인 <그대들의 호두알>은 '생명사상'에 집착한 그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나는 '조각가'라는 명칭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작업을 할 것이지만 작품의 완성도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만이 의미가 있을 따름입니다.”

삶이 곧 수행이라고 밝히는 강대철씨는 앞으로 자신이 이끌고 있는 명상모임을 중심으로 '체식'을 통한 생명운동을 조용히 펼쳐볼 계획이다. — 박남정 기자



경기도 이천군 마장면 장암 2리. 장승이 있던 곳이라 장승배기라 불리기도 하고 예부터 장수한 사람들이 많아 '장생이 마을'로 불리기도 하는 이곳에 조각가 강대철씨(50)가 산다. 시골로 가는 것이 유행처럼 된 지금에야, 특히나 예술을 한다는 사람이 시골살이를 한다는 게 특별한 것도 없지만, 서울을 벗어난 곳에서의 '성공적 삶'이란 꿈꾸기 힘들던 1982년, 한창 '잘 나가던' 그는 서울을 떠나 이곳에 자리잡았다. 강대철씨가 최근에 펴낸 《세상의 그리운 것들》(한길사)은 장생이 마을에서 그의 삶을 담은 산문집이다.

모두 3부로 구성된 이 책의 1,2부는 장생이에서의 15년 삶이 준 경험과 사유와 기억들을 편안하게 풀어내고 있는 글들로 채워진다. 지대가 높은 집의 화장실 웅이구멍을 통해 보는 세상풍경이 주는 환희, 채송화 씨받기를 통해 배운 자연의 섭리, 담배에 깃들여 사는 생명체 발견이 주는 경외감 등은 강씨가 시골살이를 통해 얻은 첫번째 수확이다. 그것들은 잊혀진 것들에 대한 그리움을 낳는다. 대문 옆 귀퉁이에 세워두던 대짜리 빗자루나 풍차로 쌀겨를 태우던 아궁이, 김치광과 화롯불 같은, 이름만으로도 눈말이 축축해져 오는 옛것들.

이슬을 발등에 묻히며 걷는 새벽 산책길 같이 맑고 투명하며 서늘하기까지 한 감동을 전하는 이 글들은, 한편으로는 생명을 헤치고 진정 소중한 것을 홀대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질책도 담고 있다.

“10년전부터 인근의 뜻있는 사람들과



## 21세기 대안적 삶의 모델

《세도나 가는 길》 펴낸 장석주씨

동양적인 범신론을 바탕에 두어야 합니다.”

결국 21세기의 대안적 삶은 인간의 인식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연과 일치를 이루는 동양적인 삶이라는 것. 서구에서는 이미 뉴에이지 운동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영적 삶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장씨는 청하출판사를 운영하던 시절부터 라즈니쉬 선집을 기획하는 등 뉴에이지 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세도나 방문으로 소설까지 쓰게 됐다.

“명상과 산책, 그리고 책읽기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제가 구현하려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쓰기'와 곧바로 연결됩니다.”

장석주씨는 그 '쓰는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일주일에 한번씩 일간지에 '기인열전'을 연재하고 있고, 한국문학사의 자료수집과 집필도 중요한 일이다. 내년쯤에는 이번 책에 등장한 주변인물들을 중심으로 후속편을 쓸 예정이다. 쓰는 일이 곧 사는 일이라고 말하는 그는 멀지 않은 장래에 명상적 삶을 실현하려 한다.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스코틀랜드의 '핀드혼 농장' 같은 생명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바람이다. — 이현주 기자

'세도나'는 미국 애리조나의 주도(州都)인 피닉스에서 두 시간 떨어진 작은 마을이다. 관광지도 아니면서 1년에 1만8천명의 외지인들이 찾는 곳. 맑은 공기가 가득하고 붉은 바위와 끊는 일광이 화려하게 대구를 이루는 곳. 소설가 장석주씨(44)는 작년에 두차례, 각기 일주일씩 보름 동안 세도나에 머물렀고 그때 얻은 영감으로 《세도나 가는 길》(단)을 썼다.

“세도나에는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장소인 볼텍스가 4곳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많은 방문객들이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접하면서 인간 중심의 인류문명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0세기의 이성적·도구적 합리주의가 다음 세기를 이끌 힘을 잃었다는 것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터, 세도나는 이 새로운 정신의 상징이다.

“소설 속 주인공들은 사회적으로든, 개인적 이유로든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인식의 차원을 달리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아내의 실종으로 미국에 온 중년의 시나리오 작가, 형제가 얽힌 삼각관계에서 상처를 입은 윤미사, 아이를 잃은 소암 선생은 기이한 인연으로 세도나에 모인다. 그들은 세도나에서 이제까지의 관념을 버리고, 직관과 느낌만으로 자신의 전 존재를 느끼는 자아의식의 확충을 경험한다.

“자신을 텅 비우고, 있는 그대로의 충일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식물조차 인간과 동일한 영혼을 지닌 신령스런 존재라는





# 막다른 미로에서 길 찾기

《게임 오버 수로 바이러스》 펴낸  
김설씨

세대 말예요. 수로의 인생도 인스턴트인 셈이지요.”

작가는 세상을 햄버거 세트로 설명해낸다. 창가로 보이는 햄버거 냄새나는 사람들, 햄버거 냄새나는 빌딩들, 수로의 가난한 인생은 '김빠진 코카콜라'로, 죽음은 '스티로폼 용기들처럼 처치 곤란한 쓰레기'로 묘사된다.

“가벼운 것이 꼭 진지한 것과 상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쉽게 읽히는 간결한 문장이 좋잖아요. 켄체하는 권위의식과 관습들에서 자유롭게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쓰고 싶어요.”

김설씨는 마음에 드는 작가를 따로 꼽지 못한다. 많은 작가를 좋아하고 그때그때 미친 듯이 작품을 찾아 읽지만 읽고 나면 깨끗이 잊는 편이라 한다. 그것이 작업에 도움을 준다는 것.

책 한권으로 일약 신데렐라가 된 김설씨는 일찍이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혼자 거리를 싸돌아다니며 끄적거리듯 습작을 해왔다. '글쓰는 일은 유일한 내 마음의 배설행위'라는 그는 현재 바이러스 시리즈 2편 2500매 작품을 마무리 중이다. — 마정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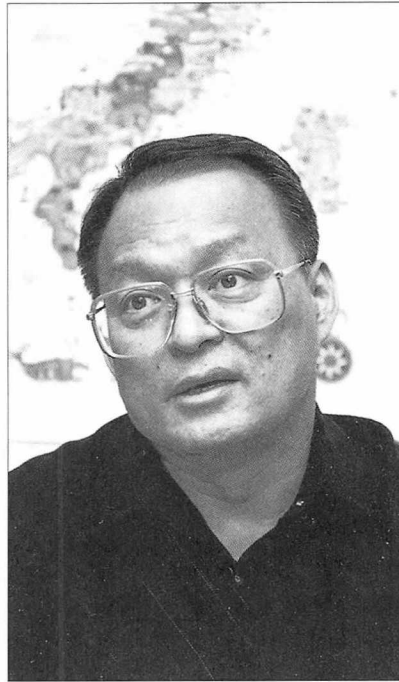
당찬 부산 아가씨가 문단에 데뷔했다. 장편소설 《게임 오버 수로 바이러스》(문학과학사)로 화려하게 데뷔한 김설씨(28). 러쉬코프의 표현을 빌리자면 '카오스의 아이들'인 이 작가는 컴퓨터게임 시나리오같은 독특한 형식에, 홍콩 갱영화같은 스토리를 걸쭉한 부산 사투리로 펼친다.

“우리 사회는 물질 틈 없이 체계화돼 있잖아요. 출구가 막힌 채로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한 몸부림을 게임처럼 풀어나간 거예요. 사실 인생의 기로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우연히 살인사건과 마약 밀매조직에 연루된 주인공 천수로. 가짜마약으로 수제비 해먹고 가짜돈으로 고구마를 구워먹은 수로는 개구리파, 두꺼비파, 살모사파, 경찰에 쫓기는 몸이 된다. 금세 사건이 일단락되는가 싶다가도 전자오락처럼 '게임 오버'란 말을 매개로 이야기를 다시 풀어나간다. 보르헤스의 단편에서 나타나듯 경우의 수, 있을 수 있는 두가지 선택의 결과가 '게임 오버'를 기점으로 펼쳐지는 것이다. 소설은 맥도널드에서 미로게임을 하는 장면에서 시작하여 수로가 일상으로 돌아와 햄버거집 점원으로 일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순한 눈매에 부드러운 부산말씨, 운순한 목소리를 지닌 김설씨는, 남성을 감금하여 마돈나라는 별칭을 붙이고 불특정다수에게 수로바이러스를 퍼뜨릴 꿈을 가진 여성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복잡한 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인공 수로는 양성적인 인물이고 28세의 젊은 여성의 상징이예요. 취업도 안되고 어느 곳에도 속해 있지 못한



# 햇빛 · 바람 · 흙으로 빛은 신의 술

《와인, 알고 마시면 두 배로 즐겁다》  
펴낸 김준철씨

와인을 맛있게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와인은 눈, 코, 입, 그리고 목으로 맛을 보아야 제격이다. 눈으로는 와인의 색깔과 투명도를 확인한다. 와인 잔을 코에 대고 깊숙이 들이쉬면서 포도의 품종과 숙성 기간에 따른 독특한 향을 맡는다. 와인을 아주 조금 입에 머금고 치아 사이로 공기를 빨아들이면 와인의 단맛·쓴맛·신맛 등이 어떻게 조화되는지 느낄 수 있다. 모든 성분과 맛과 향이 어우러진 와인은 목에 부드럽게 넘어간다.

“와인은 비싸고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렸으면 합니다. 와인산지의 역사와 특성, 와인 선택요령, 나라별 라벨 읽는 법, 와인 구입 후 보관법 등 몇 가지만 알면 쉽게 와인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와인이 주도하는 음주문화가 우리의 생활양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앞으로 전문가를 위한 와인 안내서도 집필할 예정이다. 프랑스의 보르도, 이탈리아의 피에몬테, 독일의 라인가우 지역 등 각지의 포도주 산지를 찾아 떠나는 와인 문화기행을 계획하기도 한다. 테마여행의 새로운 장르가 탄생할 날이 그리 멀지 않은 셈이다. — 박천홍 기자

술의 기원에 걱정과 광란의 디오니소스 신화가 있었다면, 인간의 시원에는 무엇이 있을까. 도취의 피안을 꿈꾸는 인간의 의지와 함께 술의 역사도 시작된다. 인간의 탄생과 술의 탄생 사이의 시차가 그리 멀지 않은 까닭이다.

술은 삶과 사회의 연대기와 일치한다. 소주와 막걸리의 60년대, 맥주의 70년대, 양주의 80년대를 거쳐, 90년대는 와인의 시대로 슬쩍 넘어가고 있는 듯하다.

와인의 시대를 여는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김준철씨(50). 그가 《와인, 알고 마시면 두 배로 즐겁다》(세종서적)를 펴냈다. 와인의 역사·제조과정·분류법, 세계의 와인 이야기, 와인 즐기는 방법 등을 220여컷의 컬러 사진과 함께 설명한 와인의 기초 입문서이다.

“지난 시대 우리의 음주문화가 집단적으로 자학하는 폭음의 문화였다면, 이제는 적게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즐기려는 음주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와인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지요.”

그는 와인박사다. 1973년에 오비맥주에 입사하면서 와인과 인연을 맺어 최초로 국산 와인인 '미주양'을 개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의 와인공장과 독일 가이젠하임 와인대학에서 와인 제조법을 배웠다. 작년까지 미주양 공장장으로 재직하다가 대치동에 전문 와인숍인 제이시 와인셀러를 열었다. 평생의 꿈을 이룬 셈이다.

“따뜻한 햇빛, 산과 강을 휘몰아 불어오는 바람, 재배시기에 따른 적절한 비, 물이 잘 빠지는 자갈과 모래가 섞인 척박한 땅, 그리고 농부들의 정성이 발효해 세계적인 와인 걸작품이 나옵니다.”

